



우리의 옛 등잔을 찾아서... ⑮ 석유등(石油燈)

석유를 연료로 불을 켜는 두 개의 백지등잔이다. 두 등잔 가운데 사진 1)의 쌍심지등잔은 한 등잔에 두 개의 심지구멍을 내고, 여기에 심지를 박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심지가 하나보다는 둘이 더 밝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조도(照度)를 높이고자 이러한 등잔을 고안한 것이다. 우리 속담에 ‘두 눈에 쌍심지(를) 켜다’라는 말도 이러한 등잔의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몹시 화를 내어 두 눈에 열화(熱火)를 띠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두 눈 치켜뜨고 몹시 화를 낼 때 바로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두 개의 심지를 사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름이 많이 소모되어, 당시 비싼 석유 값을 빚대어 일명 ‘부자(富者)등잔’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 석유가 유입된 것은 1876년(고종 13) 일본과의 통상조약 이후의 시기로 보이는데, 앞서서도 기술했듯이 황현(黃玿)의 『매천야록(梅泉野錄)』 석유시용조(石油始用條)에 1880(고종 17)년으로 기술하고 있다.

두 등잔 모두 연꽃무늬 받침에 죽절문(竹節文) 기둥(竿柱)이 서고, 그 위에 향아리 모양의 등잔과 등잔뚜껑을 만들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었다. 대개 이러한 형태의 등잔은 뚜껑의 심지꽃이 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완전한 형태를 갖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더러 쌍심지뿐만 아니라 심지꽃이가 4개 달린 4심지등잔도 확인이 된다. 또한 사진 2)의 등잔처럼 몸통에 작은 구멍을 내고 여기에 끈을 매달아 심지를 조절할 수 있는 심지 조절용 핀(pin)을 따로 묶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등잔뚜껑 옆에 있는 홈에 이 핀을 꽂아 아래위로 심지를 오르내려 불의 밝기를 조절한다. 이 핀은 후에 보다 쓰기에 편리하도록 나사방식으로 개량되었다. 두 등잔 모두 완형일 뿐만 아니라 백지의 빛깔까지 고와, 보는 이로 하여금 한참동안 눈길을 사로잡는다.

설명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사진 1) 백자쌍심지석유등잔(白磁兩柱石油燈蓋)

조선후기 // 밑지름 7.3cm, 높이 13.2cm

사진 2) 백지석유등잔(白磁石油燈蓋)

조선후기 // 밑지름 7cm, 높이 13cm